

## □ 상형토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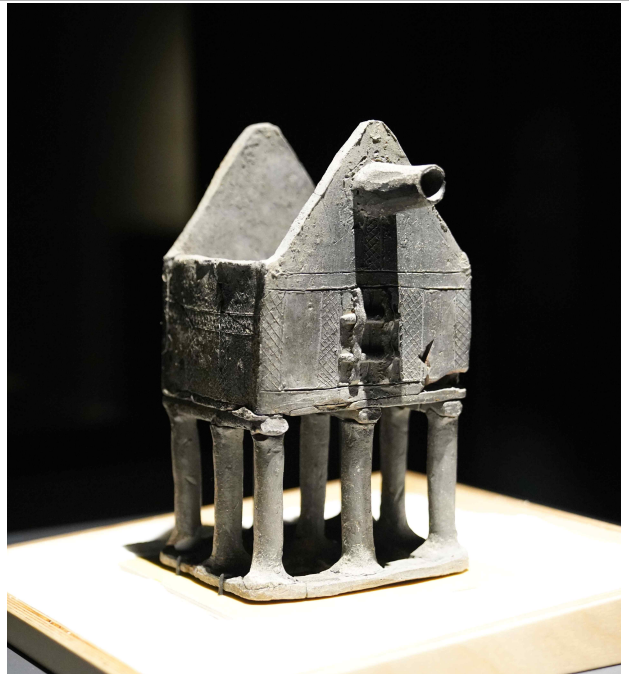
상형토기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특정한 물건의 모습을 본떠 만든 토기입니다. 오리 · 사슴 · 말 같은 동물이나, 집 · 배 · 수레 · 뿔 등 사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상형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형상을 본떠 만들 때 일상생활에 흔히 보이는 대상을 생략 · 과장 · 추상적인 수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례 과정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랐거나, 죽은 이의 안식과 영혼의 승천 등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유적보다는 무덤이나 의례 장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 집 모양 토기



창원 석동, 높이 17.6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말이산, 높이 18.7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가야의 집은 주로 구덩이를 파서 만든 움집과 다락집입니다. 당시 집의 모습을 발굴 조사된 집터와 집 모양 토기를 참고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움집은 보통 사람들의 살림집으로 부뚜막과 온돌 시설이 있습니다. 다락집은 높은 기둥을 세워 만든 이층집으로, 짐승과 습기로부터 곡물을 보호하는 창고이자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 주는 집입니다.

집 모양 토기는 집의 형태를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가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 수레바퀴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 15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출토지 미상, 높이 21.6cm,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출토지 미상, 높이 16.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도항리, 지름 8.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굽다리 위에 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토기는 아라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기는 제사를 지낼 때 술이나 음료를 담아 마시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배 모양 토기



창원 현동, 높이 18.3cm, 삼한문화재연구원 소장  
전시: 대가야박물관 특별전(~8.20.)  
(복제품)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출토지 미상, 높이 2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말이산, 길이 24.5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합천 옥전, 높이 7.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지금까지 가야 지역의 무덤과 구덩이에서 확인된 배 모양 토기는 총 7개입니다. 모두 큰 강이나 바다에 가까운 유적에서 나왔으며,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배와 관련 없는 수레바퀴나 굽다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술과 같은 액체를 담고 따르는 용도의 주자注子 혹은 잔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당시 배에 대한 상징성을 토기에 담아 형상화한 부장품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나룻배는 강이나 호수에 띄우고, 배의 앞뒤에 파도를 막는 판이 설치된 큰 배는 주로 바다를 항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배 모양 토기가 발견되는 것은 당시 배가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 모양 토기를 보고 있으면 당시 배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새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 13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 높이 13.5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합천 성산, 높이 13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고 믿었던 듯 합니다. 새를 죽은 이의 영혼을 이끄는 전달자이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성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본떠 만든 토기를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넣었습니다.

새 모양 토기는 속이 비어 있고 등과 꼬리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 액체를 넣거나 따를 수 있습니다. 새 모양 토기의 목 부분을 자르고 넣거나 머리 부분만 넣기도 한 것을 보면 새와 관련한 의례가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동물 모양 토기



사슴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 19.3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동물 모양 토기, 창원 현동, 높이 8.1cm,  
삼한문화재연구원 소장  
전시: 대가야박물관 특별전(~8.20.)  
(복제품)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함안 말이산 출토 사슴 모양 토기는 사슴이 뒤돌아보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불꽃무늬투창이 새겨져 있어 아라가야 토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모양 토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의례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마 인물형토기



전(傳) 김해 덕산리, 높이 23.2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보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갑옷을 두른 말 위에 무사가 올라탄 모습의 기마인물형토기입니다. 말을 탄 무사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창을 들어 기마 전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말 등에 있는 한 쌍의 뿔잔은 이 토기가 어떠한 의식에 사용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 사물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 함안 도항리, 높이 9.8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신발 모양 토기, 부산 복천동,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뿔 모양 잔, 창녕 강리, 높이 1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신선로 모양 토기, 김해 망덕리, 높이 8.6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등잔 모양 토기는 굽다리가 달린 작은 항아리 위에 여러 개의 등잔이 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와 잔은 구멍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심지를 둘 수 없고, 좁고 긴 원통모양을 하고 있어 실제 등잔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토기처럼 무덤과 관련된 장송의례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야 토기 가운데 비교적 화려함을 드러내는 토기입니다.

신발 모양 토기는 짚신의 모양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가야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짚신 위에 잔이 놓여 있는 것은 제사용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등잔모양토기, 신발모양토기 등 물건을 본 딴 상형토기를 무덤에 매장하여 어두운 묘실을 밝히며, 두려움을 없애고,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참고자료

### 1. 전시

-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2023.5.26.~10.9.) 中 가야의 상형토기 (※ 신라 상형토기는 대상에서 제외 됨)
- 대가야박물관 특별전 《가야의 해상교역항 창원 현동유적》, (2023.3.31.~8.20.)

### 2. 단행본 및 서적

- 국립김해박물관, 2004, 『영혼의 전달자 -새·풍요·송배-』,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06, 『가야의 미』,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07, 『함안 말이산 34호분』,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08,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14, 『가야로 가는 길』,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18,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본성-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심포지엄 자료집.
- 국립김해박물관, 2020, 『말을 탄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2021, 『가야인 바다에 살다』,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도록.
-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가야 기마인물형 토기를 해부하다』, 주류성. 단행본.

(※ 위 책은 주요 공공도서관 및 국립김해박물관 아카이브실(상설전시실 2층 출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3. 유튜브

- 국립김해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2022, <https://youtu.be/Sypzd0JEafc>
-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토기 만들기 | 수레바퀴모양 토기 만들기 | 장인정신, 2021, <https://youtu.be/8JK4gNn0bNo>
- 국립김해박물관, 함안박물관 재개관 소식 | 아라가야,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2022, [https://youtu.be/yfFiOy\\_RT1M](https://youtu.be/yfFiOy_RT1M)
-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의 해상교역항, 창원 현동유적 | 대가야박물관 특별전 소식, 2023, <https://youtu.be/ztlmx2EE3-Y>
- 국립김해박물관, [웹툰메이션] 박물관 사람들 (6화) '상형토기' 편, 2018, <https://youtu.be/66OHALjjLac>